

순천으로 떠나는 맛 여행...28일까지 '미식주간' 행사

순천만정원서 미식문화 체험

20개 맛집 인증서·인증패 증정

27·28일 명인 가공식품과 만남

순천의 맛과 미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4 순천미식주간' 행사가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9일간 순천만국가정원 동원 일원에서 '2024 순천미식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순천미식주간은 순천의 맛집을 알리고 지역 명인의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맛집 선정·영화 상영으로 꾸린 '순천미식회', 지역 명인 전시 '체험·전시 시장', 음식 만들기 경연과 소셜미디어 행사로 이뤄진 '현장 행사·공연' 등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네이버, 구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20개 맛집을 초청해 인증서와 인증패를 증정했다.

앞서 순천시는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일반 음식점 190곳과 커피 전문점·제과점 39곳을 '순천 맛집'으로 선정했다.

이들 맛집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홍보되고 있다.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유명 요리 작가 박찬일씨가 '로컬 청년, 요리로 얘기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강연은 순천대학교, 제일대, 효산고교 조리 전공 학생들이 들었다.

박 작가는 세계의 미식 동향과 한식을 접목해 강연을 펼쳤다.

오는 27일, 28일 순천만국가정원 동원 일원에서는 지역 명인을 만날 기회가 마련된다.

'잡쌀조이당 초청' 김순옥 명인과 신희수 차(茶) 명인, 조훈보 제과 기능장과 함께 요리 체험을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명인들이 직접 만든 유과와 녹차를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순천 대표 음식인 닭구이 간편식(밀키트)과 신화정의 맛간장도 판매된다. 이곳에서 순천시는 도심권 식당과 제과제빵 전문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미식주간 다양한 소셜미디어(SNS)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유명인(인플루언서)을 초청해 숨은 순천 맛집을 발굴하고, 순천 식당과 커피 전문점을 찾아 후기를 올린 방문객에게 1일 100명 커피 이용권을 증정한다.

오는 27일, 28일 오전그린아일랜드에서는 '딤파두이', '리틀포레스트' 등 음식 관련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상영 전에 삽입곡(OST) 무대를 올리고 '순천미식주간'을 홍보하는 팝콘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의 맛을 알리고 '미식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박찬일 요리 작가가 지난 20일 '순천미식주간'을 맞아 순천대, 제일대, 효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흥군, 396명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고흥사랑상품권 5만원권 지급

고흥군이 올해 처음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고흥군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조례'가 지난 19일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 대상은 고흥에 사는 17세 이상 청소년 396명(2007년생)이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을 받으면 고흥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준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흥군 16개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른 지역 시·군·구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리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교육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

출이 심각한 시점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축하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는 업무협약을 맺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하기 위한 '1-7-7 적금' (가입 기간 1년, 매월 70만원 이내, 이자 7.0%)을 출시해 지난 3월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재지정된 순천만습지 갈대숲이 노을을 머금으며 일렁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습지·정원, 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2017년부터 5회 연속 지정 받아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는 이번 재지정으로 2017년부터 5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라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

에서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선정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1000만여 명이 다녀간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로서 기록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습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순천만국가정원은 4월 개장 후 3주 만에 관광객

이 59만 명이 찾아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를 주제로 올해 12월 까지 매주 주말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주제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다"며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순천에서 힐링하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주암호생태관 생태습지 기록 참가자 모집

10월까지 7차례 생태체험 행사

보성주암호생태관이 주암호 생태습지의 생태계를 기록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보성주암호생태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암호 생태습지 생물 다양성 탐사를 진행한다.

이번 탐사에서는 보성군 주암호 생태습지에서 살아가는 조류와 곤충, 양서·파충류, 포유류, 식물 등 습지의 다양한 생물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가족, 학생, 개인이 매회 20명씩 시민과학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습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생물 다양성 탐사 결과는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

용과 보전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탐사 결과는 오는 11월과 12월 결과를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주암호 습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을 홍보한다.

탐사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가족,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보성주암호생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성주암호생태관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 탐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태 감수성과 다양한 생물 종이 살아가는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보성군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은종 기자 kjb@kwangju.co.kr

구례 천은사 지리산 봄 음악회

27일 보제루서 '재즈 인 스프링'

구례 천은사가 오는 27일 재즈의 선율로 지리산 자락의 운치를 더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주지대진스님)는 오는 27일 천은사 보제루에서 지리산 봄 음악회 '2024 천은사 재즈 인 스프링'을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재즈 애니메이션 영화 '블루 자이언트' 수록곡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국 대표 색소포니스트 신명섭씨가 이끄는 재즈 그룹이 열정의 무대를 올린다.

음악회 관객들은 천은사 숲과 저수지를 한 바퀴 걷는 '상생의 길' 탐방도 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3곳 모집

여수시가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3곳을 새롭게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불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소 등이다. 지역 평균 가격을 넘기지 않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 휴업하지 않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수시는 착한가격업소에 신청한 업소들의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 합동 현지 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종 지정은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지판과 여수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시 누리집 홍보, 지방 공공요금 감면, 소모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지정 희망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시청 지역경제과를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불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고흥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초 위생관리 평가지표를 포함한 10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16개 기관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흥군은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활용과 식품 위생업체 점검 및 합

동단속 참여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식품위생사업 종사자분들이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협조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시와 광양서울병원이 지난 22일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액 지원

광양서울병원과 업무협약

광양시가 지역 병원과 손잡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펼친다.

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서울병원과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협업한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광양서울병원은 오는 5월부터 특수 건강검진을 시작한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검진이 포함됐다.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총 6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

해 검진을 진행한다. 병원은 전문의 상담과 사후 관리·예방 교육도 한다.

검진 대상은 광양시에 사는 짝수년도 출생 51세~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다.

광양시는 지난 3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검진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검진 일정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이며, 비용의 90% (국비 50%·지방비 40%)가 지원된다. 광양시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화연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차별화된 특화 검진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